

OECD/DAC 동료검토 방법론 회의

I. 회의개요

표제 회의가 2011.4.19 OECD사무국에서 OECD개발협력위원회(DAC)주관으로 개최됨.

II. 주요내용

- 회원국의 정책변화 촉진, OECD 내 개발 어젠다 추진관련 DAC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하고, 고위급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DAC동료검토 강화 필요성이 지적됨.
- 원조효과성, 개발을 위한 PCD 이슈와 더불어 성평등 및 환경, 기후변화 등, cross-cutting 이슈가 강조된 2011-12년간 동료검토를 통한 상호학습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이 승인
- EU를 포함한 DAC회원국의 시민사회(CSO)사업에 대한 원조 및 CSO를 통해 프로젝트를 집행한 원조는 2009년 170억 달러 규모로, 전체 ODA의 13%수준이며, 시민사회를 통한 중점 지원분야는 식량원조, 재난방지 등 인도적 지원 분야임.
- 사무국은 미국 동료검토 회의(6.22)부터 핵심결과 및 권고사항(ma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)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예정임을 소개하고, 이에 대한 참여를 장려
- 비DAC회원국을 대상으로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DAC특별검토(special review)가 DAC의 관계강화 및 회원국 확대에 효과적임을 평가하고, 피검국 내에서 개최되는 결과 워크숍에 DAC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요청